“안녕들하십니까?”
청소년은 묻고 싶다.

– 청소년 표현의 자유 부정하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2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희망의 우리학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11:00 ~ 11:05
당사자 발언	11:05 ~ 11:10
활동가 발언	11:10 ~ 11:15
연대 발언	11:15 ~ 11:20
기자회견문 낭독	11:20 ~ 11:25

수신	각 언론사 귀하
발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문의 : 검은빛 010-4054-8771)
제목	'청소년의 표현을 탄압하는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일자	2013. 12. 23
첨부	

취 재 요 청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행렬이 한창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안녕들하십니까'는 어느새 사회적 행동들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 각계각층의 안녕치 못한 삶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안녕치 못한 청소년들의 현실과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청소년들은 '안녕'조차 물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붙여놓은 대자보는 갈갈이 찢겨 떨어지기 일쑤였고, 대자보를 붙였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징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표현하기 시작한 청소년들은 외부세력, 불순세력으로 낙인찍혔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 등 여러 법률과 국제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청소년들은 학교당국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것입니다.

4.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헌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표현을 검열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학생들의 대자보 부착과 관련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을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본권 탄압을 조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모습은 경악스러움과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5. 하여, 청소년인권을 고민하는 저희 4개 단체(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는 교육당국이 벌이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고 대자보로 인해 학내에서 억압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표현을 탄압하는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6. 기자회견 당일에는 직접 학내에서 대자보를 부착하여 피해를 본 청소년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청소년에게도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고 말할 자유가 있다

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의 열기는 대학교를 넘어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도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철도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 청소년의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고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의 벽에.

많은 학교들이 청소년들의 대자보를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단, 강제 철거하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행하고 있다. 이에 학생이 사전에 허가를 요청하러 갔더니 불허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하는 학교,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학교마저 나타나고 있다. 징계까지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라거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한 청소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금기시하기도 한다. 그런 학교들은 과연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청소년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허가하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반인권적이며, 대자보를 무단, 강제 철거하는 것 역시 인권 침해이자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교육부는 한 술 더 떠서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며 학교들이 생활지도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며 지극히 교육적인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 활동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규정한 교육부가 생각하는 ‘면학’ 그리고 ‘교육’이란 대체 무엇인가? 닥치고 입시와 취업을 위한 공부만 하는 것이란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교육부의 교육관이야말로 지극히 비교육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 묻고 말할 자유가 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에 의해 말하고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정치적 권리가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을 규탄한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해야 할 일은 학교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공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들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청소년의 말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울 것이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자유롭게 묻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청소년들의 ‘안녕’한 삶 역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도 사람이고 시민이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3년 12월 2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희망의 우리학교

[참고자료] 학내 대자보 탄압 대표 사례

서울 A고등학교 사례

19일 오후 6시 익명으로 학교 외벽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 다음날 20일 아침 7시 반 자보가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대자보를 찾으려고 생활지도부 앞에 서있었는데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격양된 어조로 “야! 너 이리와봐!” 라고 말하면서 생활지도부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너 의도가 뭐야!”, “너 이걸 붙인 목적이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의견을 표출할 때 “목적이 꼭 필요하냐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맘 맞는 사람 모아서 뭐하게? 봉기라도 일으키게?” 라면서 제 자보를 조롱하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의 권리 침해입니다.

또 글씨를 못썼다느니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환경미화에 좋지 않다느니 등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제 자보를 폄하했습니다. 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으니 CCTV를 봐서 어느 선생님이 철거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얘기 했더니 CCTV는 학생들한테 전혀 보여줘서도 안되고 내가 너한테 보여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이유도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

분명히 맨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익명으로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보를 붙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철거했거나, 19일 6시에 내가 붙이는 것을 CCTV로 확인했거나, 다른 선생님이 철거하고 이를 보고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대자보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일 다시 학생주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신공격에 대한 사과발언, CCTV공개, 자보철거에 대한 서면사과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자보 원문과 피해상황, 요구사항을 A4에 적어서 전교생에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씨를 못썼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이 아니라 교사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진심으로 글씨체를 지적한거였다는 변명을 하며 사과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천 B고등학교 사례

12월 16일 아침 학교현관쪽에 대자보를 처음 붙였습니다. 수거될 것을 대비하여 대자보 맨 아래에 "만약 문제가 되어 수거하시게 되면 먼저 저를 불러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붙이자마자 교장이 대자보를 보고 수거 해 갔고 대자보를 읽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붙이자마자 수거되었으니까요.

이 것을 보고 쉬는시간에 다시 자보를 써서 16일 방과후에 급식실 후문에 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요일에 한 학생이 익명으로 붙인 자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여진 자보가 아직까지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기에다가 붙이면 수거될 위험성이 낮겠다고 생각해서 그 곳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17일 아침, 확인 해 보니 제 자보와 다른 학생이 익명으로 붙인 자보 모두 수거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학교일과중 쉬는시간에 대자보를 학교현관에 다시 붙였습니다. 이 날이 시험날이어서 학부모 감독관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사,학부모까지도 자보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것도 쉬는시간 10분이 지나자 교감이 수거했고 이번에는 저를 부르기 까지 했습니다. 교감은 언성을 높이며 "게시물 게시하려면 학교 허가가 있어야 한다"

"네 생각 다른 학생에게 강요하지 마라" "학교안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안된다"를 비롯하여 "넌 영웅심리,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등의 인신공격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벌점이나 징계를 받진 않았지만

교감은 "한번만 더 이런거 붙이면 그 때는 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경남 C고등학교 사례

페이스북으로 주현우씨를 시작으로 퍼지는걸 보고 '나도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터라 입시 등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아침 일찍 급식소 앞에 붙였더니 반응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심시간에 뜯긴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부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절차상의 문제라면서 교칙에 없는 내용을 교칙이라면서 계속 주장하며 자신의 말을 맞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학생부장 선생님이 반성문이랑 개요서를 요구했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장 선생님은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학내에서 했던 활동들은 언급하며 부모님을 부르시더니 '여태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잘못햇다, 졸업할때까지 안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참고자료] 대자보 탄압 관련 서울시 교육청 공문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년말 학교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한 생활지도 협조

1.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5693(2013.12.18)의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 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학년말 학교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학교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수신자 청(중등)1-11, 중 전체(1-382), 고 전체(1-318), 국립각종중(1-2), 공립각종고(1-4), 사립각종중(1-3), 사립각종고(1-2), 고등기술(1-3), 학평(1-14)

장학사	홍난희	학생자치활동담당장학관	김용길	학교생활교육과장	전결 12/19 신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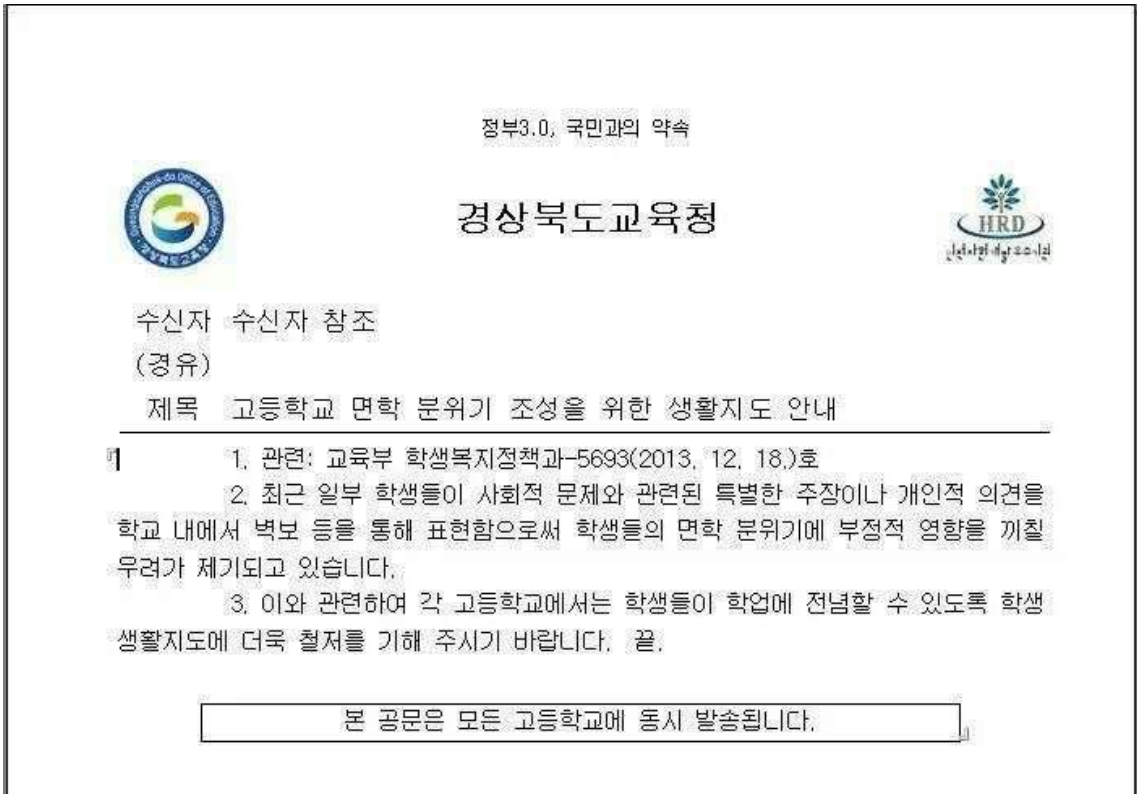
협조자

시행 학교생활교육과-32422 (2013.12.19.) 접수 도봉고등학교-15996 (2013.12.19.)

우 110-7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
전화번호 (02-3999-551) 팩스번호 (02-3999-754) / hongmosi@sen.go.kr / 공개

나에게는 작은 성렴 후손에겐 밝은 미래

[참고자료] 대자보 탄압 관련 경상북도 교육청 공문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경상북도교육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등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5693(2013. 12. 18.)호

2. 최근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특별한 주장이나 개인적 의견을 학교 내에서 벽보 등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문은 모든 고등학교에 동시 발송됩니다.